광주 생산 삼성 가전제품 반덤핑 제소 '비상'

"美 수출길 막히면 하남산단 집단 파산"

협력업체 5천억 피해 … 광주경제 큰 타격

미국 월풀의 삼성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면서 광주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덤핑으로 판정되면 30%가 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광주에서 생산되는 삼성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길은 막히게 된다. 또 수출 중단에 따른 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는 줄도산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경제는 붕괴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잇단 반덤핑 제소 왜?=월풀이 반덤핑 제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월풀의 경영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게 가전업계의 관측이다. 프렌치도어 냉장고(윗칸은 냉장실이고, 아랫부분은 냉동실인 구조)에서 삼성과 LG에 역전당한 것도 모자라 세탁기에서도 거센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티븐슨컴퍼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미국 내 냉장고 점유율은 2010년 초 11.5%에서 2011년 3분기 12.6%로 올랐고, 같은 기간 LG전자도 9.8%에서 12.5%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3월말 제소 당한 삼성과 LG의 프렌치도어 냉장고도 각각 24.0%와 21.7%(2011년 3분기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해 월풀의 5.7%에 비해 4배가량 실적이 좋았다.

월등하던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월풀이 18.7%, LG전자 14.1%, 삼성전자 9.1%로 좁혀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급 드럼세탁기에서, LG전자는 전자동세탁기에서 1위를 기록해 전체 관세에 대한 월풀의 초조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세탁기 조사 여부 결정=월풀의 제소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오는 19일(미국시간) 반덤핑 조사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 상무부가 조사 개시를 결정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

조사 개시와 반덤핑 예비판정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삼성과 LG는 미 상무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주력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요청할 경우 세탁기 관련 해명자료를 충분히 제공한 뒤 냉장고에서처럼 반덤핑 예비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냉장고의 경우는 오는 3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 조사관들은 지난해 11~12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현장 실사했다.

◇지역경제 파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광주사업장의 매출은 약 5조원으로, 이 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수출액은 1조원에 달한다. 광주사업장 매출의 20%가 미국 수출인 셈이다.

반덤핑 판정이 나면 고스란히 미국 시장을 잃게 된다. 3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물며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광주사업장의 미국 수출 물량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협력업체다. 삼성이 광주사업장의 1조원대에 달하는 미국 수출을 포기하면 협력업체는 5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 감소에 따라 30%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감축도 우려된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하남산단은 파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최근 협력업체 대표들은 2~3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등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는 못했다.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해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간데 이어 반덤핑 문제까지 불거져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사자인 삼성이 잘 대응해야 하겠지만 광주시와 정부 등도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반덤핑 압박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며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제수품 직거래특판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7일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광장에서 '설맞이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직거래 특별장터'를 열었다. 이날 직거래장터에서는 사과, 배, 단감, 배추, 밤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한우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팔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서민에 2조원 공급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 올 업무 계획

'u-보금자리론'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올해 서민주택금융을 2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7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u-보금자리론 4700억원, 주택사업자 보증 1조5000억원, 주택연금보증 500억원 등 총 2조200억원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 대출 상품으로 2010년 6월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16일부터 4%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주택사업자보증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중소 건설업체를 돕고, 분양중도금, 전세자금 등 담보력이 없는 대출상품에 주택신용보서를 발급해 지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출시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부부가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노령가구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경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은 "지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연간 서민주택금융 2조원 이상 공급이라는 의미 있는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입차 3대 중 1대는 디젤차

지난해 3만6931대 등록

작년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3대 중 1대는 디젤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디젤차 비중은 35.2%로, 2010년 25.4%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등록 대수로는 2만3006대에서 3만6931대로 늘면서 증가율이 60.5%에 달했다.

작년 수입차 전체 시장이 2010년보다 16% 성장했음에도 가솔린차는 6만5269대에서 6만4181대로 오히려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수입 디젤차 시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뿐 아니라 세단도 잘 나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동안 디젤차의 장점인 연료 효율성이 고가의 수입 세단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으나 고유가로 연비가 주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인식이 바뀌었다고 업계는 풀이했다. 실제로 6000만원대의 BMW 502d는 작년에 전년 대비 4배 많은 6211대가 팔리면서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92.74 (+33.47)
▼ 코스닥지수	519.58 (-0.27)
▲ 금리 (국고채 3년)	3.37% (+0.02)
▼ 원·달러 환율	1145.50원 (-9.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아파트 브랜드·인지도 톱3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

부동산114 조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래미안',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GS건설의 '자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부동산114는 전국의 성인남녀 6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래미안·푸르지오·자이(이하 가나다순)가 브랜드 인지도 부문에서 톱3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0년과 동일한 결과다.

선호도·인지도가 높은 10대 브랜드에는 더 샵(포스코건설), 래미안, 센트레빌(동부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위브(두산건설), 자이, 캐슬(롯데건설), 푸르지오, 힐스테이트(현대건설), e편한세상(대림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품질과 기능이 우수하다는 답변(51%)이 가장 많았고 건설사의 재무구조·안전성 등이 좋고(16.5%)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12.6%)이 뒤를 이었다. 선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로는 신뢰감(11%)이 첫손에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81.5%는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86.5%는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는 '주택 총 구매비용의 5% 미만'을 선택한 답변이 43.6%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年 수출 200만대 돌파

지난해 사상 최초로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200만대를 돌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생산분을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작년 수출 실적은 현대차 119만3343대, 기아차 108만9302대로 합계 228만2645대를 기록해 연간 수출 200만대를 처음 넘어섰다.

현대기아차는 2010년에 198만9680대를 해외로 내다 팔아 수출 200만대 달성을 아쉽게 놓쳤으나 올해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신차 판매 호조로 수출 200만대를 너끈히 돌파했다.

기아차도 창사 이래 최초로 수출 100만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1년 133만8642대에 불과했던 수출 실적이 10년 만에 100만대 가까이 늘었다.

국내 생산 차종의 수출 비중도 늘었다.

현대기아차는 2001년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 100대 중 53.8대를 수출했지만 2011년에는 100대 중 66대를 해외에 팔았다.

한편 해외공장 생산분을 합친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전체 해외판매실적은 541만4735대로 글로벌 판매 실적(659만1308대)의 82.1%에 달했다. 이는 2010년 해외판매 비율(80.1%)보다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336만8335대, 204만6400대를 해외에 팔면서 처음으로 해외 판매 실적이 300만대, 200만대를 각각 넘어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적절한 시기에 신차를 선보인 것이 수출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